

국제농업박람회서 대규모 수출 상담회

20개 국가 바이어 농수산물 등 판촉

21일부터 4일간 화상·현장 상담 병행

오는 21일 개막하는 2021 국제농업박람회서 대규모 수출 상담회가 열린다. 국제농업박람회사무국은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농업의 수출 총력 지원을 위해 2021 국제농업박람회서 미국, 중국, 태국 등 해외 20개국 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수출 상담회는 첫날인 21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상담회에는 미국, 오스트리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전남도 해외 상설판매장 대표를 비롯해 아마존 전남도 브랜드관 운영사, 해외 글로벌 기업 등 20개 국가 80개 사 해외 바이어가 대거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전남도 우수 농수산물

등 주력 분야와 소비재·농기자재 IT 등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120여개 기업이 참가하며 화상·현장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수출 기회를 모색한다. 주력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온라인시장 점유율 아마존의 전남도 브랜드관 운영사가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물 제품 입점을 위해 직접 참여한다. 유망 품목 분야에서는 중국의 큰손 판이공 15개 사가 국내 기업 50여사를 대상으로 1대1 컨설팅 및 세미나를 통해 전남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IT 강국인 중국 저장성 요청에

따라 항저우 바이어와 글로벌 공급망에 필요한 협력사 발굴 차원에서 농산업 기자재 기업 60여개 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상담회를 개최한다. 2019 국제농업박람회에서는 18개 국가 46개 사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2천4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찬로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수출 기업을 만나면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바이어 발굴과 매칭할 기회를 요청하고 있다”며 “글로벌 파트너를 위한 유관기관 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농협 '새농민상 분상·이달의 새농민상' 시상

분상 김성열·윤순선, 임정복·이문숙 부부 10월 김요현·최은이, 김선봉·이은화 부부

농협전남지역본부에서는 13일 “최근 지역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제56회 새농민상 분상’과 10월 ‘이달의 새농민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상은 장흥 부용축산 김성열·윤순선 씨 부부와 함평 돈진농장 임정복·이문숙 씨 부부가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후 새농민회원으로 활동하며 자립, 과학, 협동의 새농민 3대 정신 실천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분상은 농협중앙회에서 매달 우수 선도농업인에게 수여하고 있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 중 매년 1회(20쌍 내외) 최고 농업인을 선발해 시상한다. 정 부 포상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10월 ‘이달의 새농민상’에는 청산농장 김요현·최은이 씨 부부(영광군 묘량면)와 광천목장 김선봉·이은화 씨 부부(나주시 공산면)가 선정됐다. 이들은 선도 농업인으로서 지역에서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고 각종 사회 공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 실천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과 영농 과학화 및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을 지칭하는 영예로운 명칭이다. 매달(1·8·12월 제외) 지역 농협의 추천을 받아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새농민상 분상 및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경영과 기술 개선을 위해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전남농협, 고흥서 마늘파종 기계화 현장 연시회

관행 대비 96% 노동력 절감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최근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에서 마늘 파종 기계화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 연시회는 녹동농협 주관으로 마늘 전업 및 농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시회를 통해 마늘 생상비 절감과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시연한 파종기계는 자율주행 트랙터 부착형 7조식으로 멀칭비닐 천공형 점파식 마늘 파종기다. 보통 관행적 마늘 파종은 10a 당 24.8시간의 노동력이 들어가지만 기계식 파종을 할 경우 1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아 관행 대비 96%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농촌 고령화·부녀화로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 사태까지 겹쳐 마늘 농가들은 제때 마늘 파종을 할 수 있을지 시름이 깊었지만 마늘 파종 기계화를 통한 고질적이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에서는 2만여 농가가 3천800여ha에 마늘을 재배하고 있다”며 “마늘 농가들이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고흥군 도덕면 오마리에서 녹동농협 주관으로 마늘전업농 및 농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 파종 기계화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계 파종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러 박 본부장은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농가 인식 개선 및

관행적 인력파종 작업을 기계화 파종으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은진 기자

해양쓰레기 수거 체험으로 바다 살리기 ‘앞장’

수산과학원, 자체 개발 수거 도구 활용 프로그램 마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13일 “날로 심각해지는 소형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쓰기 쉬운 수거 도구를 개발, 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바다 살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쓰레기는 범정부적 관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앞장서 계속 수거하고 있으나 재활용을 위해 주로 부피가 큰 것만 처리하고 있다. 이 중 플라스틱 종류는 시간이 갈수록 크기가 작아져 해양 생물 생태계에 막대

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산하 해양수산과학원은 패류 채취용 형망 틀에서 착안한 쓰레기 수거 도구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어린이와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자원봉사 활동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해안가 근처 무릎 정도 깊이에서 한두 명이 해안을 따라 걸면서 해변에 떠 있는 소형 해양쓰레기를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채집할 수 있다.

실제 해양수산과학원이 위치한 여수 무술목 해안에선 수차례 정화 활동을 펼친 결과,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소형 해양쓰레기가 수거됐다. 해양수산과학원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교육·홍보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수거 체험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지구 살리기 실천 운동의 첫 출발이라고 확신, 연내 이색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농업박물관, 16일 전국 청년 쌀요리 경연

18-22일 매일 100명 선착순 고구마 수확 체험도

전남도농업박물관이 가을 수확철을 맞아 청년 쌀 요리 경연과 고구마 캐기 체험 행사를 잇따라 개최한다. 농업박물관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쌀 문화관에서 “2021 전국 청년 쌀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연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쌀 요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남도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감소하는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사전 서류 심사를 거쳐 예선을 통과한 2인 1조 20개 팀이 참가해 쌀을 주원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하는 요리 경연을 펼친다. 심사 배점은 음식의 창의성 30점, 상품성 30점, 작품성 20점, 전문성 20점 등이다.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요리 전문가가 평가해 입상자를 결정한다. 대상 100만원, 금상 60만원, 은상 2명 각 40만원, 동상 3명 각 20만원, 장려상 3명 각 10만원 상당의 부상과 전남지사 상장을 수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농업박물관 누리집(www.jam.go.kr)을 참조하거나 농업박물관(061-462-2752), (사)문화사업진흥회(이사 하정화·010-3296-752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농업박물관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농업테마공원에서 수확의 기쁨과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는 ‘고구마 캐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하루에 100명씩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자는 고구마를 직접 캐보고 수확한 고구마를 3kg 씩 가져갈 수 있다. 캔 고구마 중 일부는 즉석에서 구워 맛보도록 군고구마 나눔 행사도 치러진다. 행사는 오전·오후 각 50명씩 나눠 진행하며 참가비는 5천원이다. 전화(061-462-2753)나 누리집(http://www.jam.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사 261-9462
- 일곡지사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